

중국·베트남 공식방문

공무출장 결과보고서

2019. 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성과	3
III. 주요일정	4
1. 장하성 주중국대사 주최 오찬	4
2. 스야오빈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면담	8
3.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주최 공식오찬	21
4. 쩌 빈 뚜옌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25
5.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면담	33
6. KOICA 현지사업 보고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44
7. 응웬 비엣 타오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원장 면담	52
※ 별첨자료	
[별첨 1] 중국 정치·경제·사회 동향	59
[별첨 2] 베트남 정치·경제·사회 동향	69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와의 정기교류 복원
- 한-베트남 의회 예산기구 간 협력 강화
- 호치민시 도시발전계획 추진 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 당부

2 출장 지역

- 중국 베이징
-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3 출장단

- 단장: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
- 단원: 송수환(기획관리관), 윤성민(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황준연(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

4

출장 일정

일자	주요내용	비고
6.10(월)	○ 항공이동 ○ 주중국대사 주최 오찬	중국 베이징
6.11(화)	○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면담 ○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주최 공식오찬 ○ 항공이동	
6.12(수)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베트남 호치민
6.13(목)	○ 항공이동 ○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면담	베트남 하노이
6.14(금)	○ KOICA 베트남 사무소 및 사업현장 방문 ○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원장 면담	
6.15(토)	○ 항공이동	

II. 출장 성과

① 한-중 예산전문기구 간 정기교류를 위한 기반 마련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공작위원회 공식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2015년 이후로 중단되었던 양국 예산전문기구 간 정기교류체제를 복원
- 경기전망, 예산분석, 법안비용추계 등 재정 관련 국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중인 선진적인 분석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방안 모색

② 베트남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한 국회예산정책처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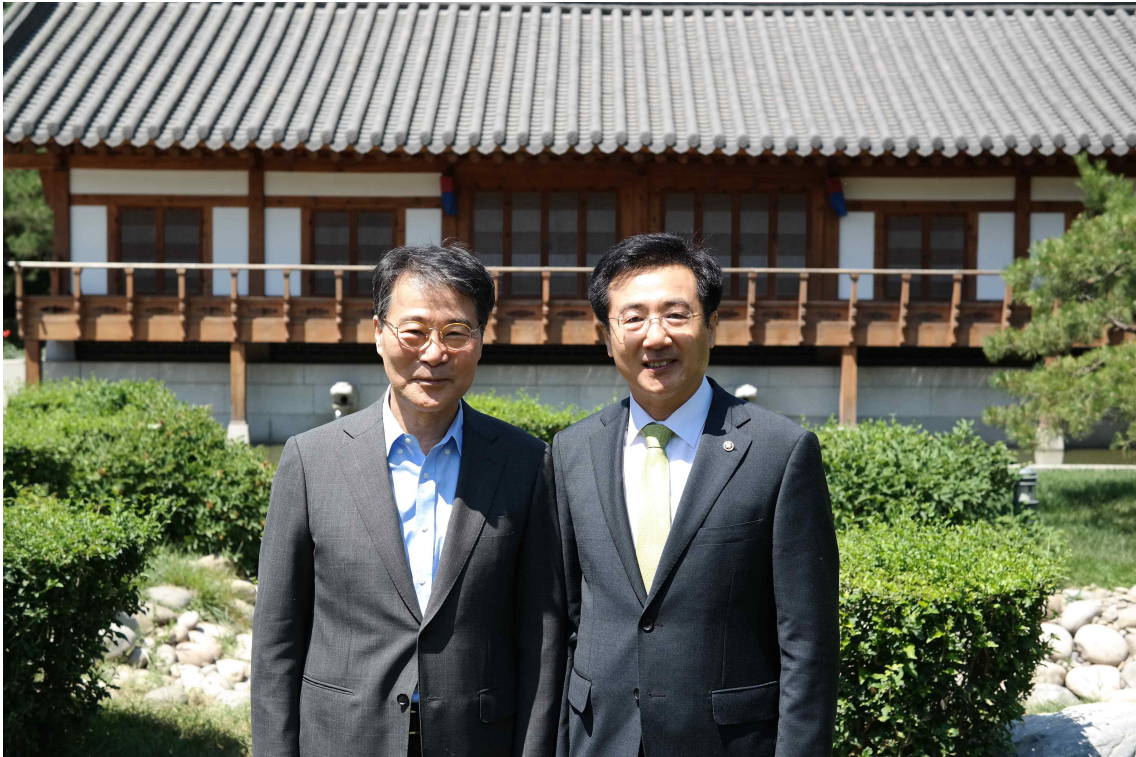
- 국회 재정의산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기관 지도자들에게 국회 예·결산 과정에서 예산정책처가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한국과 베트남이 직면한 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전개
- 베트남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의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SOC확충, 환경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관심 당부

③ 국외 수행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역량 강화

-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중점협력국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베트남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국외 수행사업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안·결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III. 주요 일정

1 장하성 주중국대사 주최 오찬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2:00~13:30
- 장소 : 대사관저
- 오찬주최자

주중국대사		
성명	장 하 성	
생년월일	1953년생	
학 력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2005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2008 한국재무학회 회장 2017.5 ~ 2018.11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9.3 주중국대사	

- 배석자

성 명	직 위
이충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정무공사
남상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총무참사관
김형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입법관

나 주요 내용

- 대표단은 중국 전인대와의 공식일정 실시 전 장하성 주중대사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여 한중관계 주요현안, 중국의 최근 대외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음.
- 장하성 주중대사
 - 중국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부분, 비슷한 부분, 더 나은 부분이 모두 있어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
 - 우리가 중국의 안 좋은 부분만을 보고 중국에 대해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함.
 - Post-THAAD에 대한 정부·기업·국민의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실제 한중관계 개선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중국대사관이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다 감사서한

대한민국 국회

장하성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귀하

존경하는 대사님,

저의 중국 방문 시 베풀어주신 따뜻한 환대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사님의 관심과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와의 정기교류를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등 중국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오찬자리에서는 대사님의 경제에 대한 깊은 식견과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굳건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한중관계 발전과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예산정책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국을 떠나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대사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대사님의 건승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6. 17.

이 종 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2

스야오빈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0:00~11:40

□ 장소 :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대회당

□ 면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성명	스야오빈(史耀斌, Shi Yaobin)	
생년월일	1958년 6월	
학력	길림재무학원 회계학·경제학 학사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경제학 석사 영국 바이스 대학 사회경제대학 석사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재정학 박사	
주요경력	1975-78 네이멍구자치구 치안 및 방송사업 담당 1982-84 네이멍구자치구 재경학원 무역경제학과 교사 1987-93 재정부 재세체제개혁실 과원 1993-95 재정부 재세체제개혁실·세입실 농업세처 부처장 1995-01 재정부 세입실 농업세처·총괄·소득세처 등 처장 2001-05 재정부 세정실 부국장 2005-10 재정부 세정실 국장 2010-11 후난성 상탄시 당서기 및 시장 2011-13 후난성 재정청 당서기 및 청장 2013-18 재정부 차관 2018-現 제13차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위원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배석자

성 명	직 위
Xia Guang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부주임
He Chengjun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예산결산심사국장
Diao Yijun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법안국장
Zhang Yongzhi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조사국장
Xie Sheng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판공실 과장
Hu Liwen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판공실 과장
Ding Hongyuan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판공실

□ 통역 : 이호형 통역관(한→중)

※ 중→한 통역은 전인대측에서 실시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대표단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인민대회당을 시찰한 후 예산공작위원회와의 면담을 가졌음.
-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는 양 기관의 역할에 대한 소개, 기관 간 정기교류 복원 필요성, 양국 재정제도의 특징, 한-중 의회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2] 면담내용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먼저 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취임 후 첫 해외일정으로 우리 예산공작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처장님께서서는 입법관으로 중국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산정책처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취임으로 양 기관 간에 교류 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 본인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이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을 맡고 있으며 최근 중한우호소조 조장을 겸임하게 되었음.
 - (참석자 소개)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스야오빈 주임님의 공식초청 및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간 교류

못지 않게 전문기구 간 교류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음.

- 2005~2007년 중국 입법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님 간의 면담에서 의원 간 정기교류체제 결성과 함께 전문기구인 예산정책처, 법제실 간 활발한 교류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그 당사자로서 중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얼마 전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소속기관 간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의미도 있음.
- (참석자 소개)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본인은 재정부 출신으로 지난 3월 재정부에서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로 옮겨왔음.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에서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장관급)으로 승진한 셈임. 저의 전임이었던 주임님 역시 재정부 부부장에서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으로 오셨고, 이번에 재정부 부장이 되셨음.
- 재정부 근무 시절 중한세수회의체 교류를 통해 2년에 한번 꼴로 한국을 방문하였음. 한국과 중국은 친척을 방문하듯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임. 예산전문기구 간 상호방문 역시 정기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예산공작위원회는 1975년에 설립된 장관급 사업기구임. 과거에는 정부가 보낸 예산안을 전인대 전체회의로 보내는 역할만 제한적으로 하였으나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 예결산 심사 및 정부예산 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예산관련 법률초안 작성에도 협조하고 있음.
- 최근 2~3년 사이 4가지 업무가 추가되었음. ① 예산 심사 전 각계의견 청취, ② 지출예산에 대한 정책적 심사 확대, ③ 국유재산 현황 심사, ④ 공무원 회계감사 등임.

- 예산공작위원회와 예산정책처 간 상호방문 확대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주임님께서도 우리 처와 기관 간 협력을 돈독히 하시고 재정부 부장으로 영전하시길 기대함.
- 예산정책처는 2004년에 설립되었음. 처장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함. 현재 정원은 138명이고 이 중 40여명이 박사급 전문인력임.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우리는 장관급 기구이지만 인원이 30여명밖에 되지 않음. 예산공작위원회 증원에 대해 상부 보고 중인 상황임.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우리 예산정책처도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하였음. 기관 간 교류의 중요성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함.
- 예산정책처의 업무는 3개 분야로 나뉨. ① 예·결산 분석업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함. 우리가 제시한 문제점이나 수정의견 및 개선방향이 곧바로 국회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심사 시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음.
- ② 법률안 비용추계업무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우리의 추산자료를 근거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는 법률안을 결정할 때 비용을 감안한 책임있는 입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임.

- ③ 경제동향 파악 및 경제지표 전망 업무는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과 별도로 독자적인 수치 및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음.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경제성장률 등 지표전망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전망치나 지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지? 만약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지표가 정부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우리가 분석한 지표 및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전망치 등은 정부와 상이한 경우가 많음.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전망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지만 예산정책처는 독자적인 전망치를 발표하여 국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올해를 예로 들면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하였으나, 예산정책처는 2.5%를 예상하였음. 현재는 정부도 전망치를 2.5%로 수정하여 경제정책을 수행 중임.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이 정부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감시자(Watch Dog)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전망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들 다양한 기관이 추정한 전망은 정부 전망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정부 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우리도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와 상이한 전망을 대학, 경제연구소 등에서 실시하기도 하나 주로 세입예상에 그치고 있음. 예산정책처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He Chengjun 예산공작위원회 예산결산심사국장

- 한국측이 사전에 궁금해 하였던 중국의 재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국의 재정정책은 경제체제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① 1998~2004년은 금융위기 충격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였음. 또한 농촌세금과 비용부문을 개혁하였는데 2004년에 농업세를 인하하고 2006년에는 농업세를 폐지하였음.
- ② 2005~2008년은 물가가 안정화되고 경제성장이 균형을 이룸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였음. 특히 재정적자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억 위안의 적자폭 감소를 시현하였음.
- ③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였음.
- ④ 2012년 당대회부터 우리는 중국을 중고속 발전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음. 이에 투자형 성장정책에서 혁신형 성장정책(신산업 발전, 도농격차 축소 등)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재정정책 역시 수요에 중점을 두었던 예전과 달리 세금을 줄여 국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출규모를 최적화하는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음.
- 다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세금 분배제도인 ‘분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분세제도는 1994년에 시작되었음. 분세제도는 ① 세금을 중앙세 / 지방세 / 중앙-지방 공유세로 구분하고, ②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세무기구를 설치하며, ③ 중앙의 지방에 대한 세금 반환 및 지역 간 재력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전지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중앙재정은 국방·안보·중앙기관 운영분야 등으로 구성되며 거시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재정은 SOC, 경제사회발전지출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운영기능을 담당함.
- 2020년에 중앙-지방 간 재정분야 획정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방·

안보 등은 중앙재정, 경제발전지출은 중앙-지방 공유세, 지방재정에 적합한 분야는 지방재정으로 구분될 것임. ① 중앙 고정수입은 관세, 증권거래세, ② 중앙-지방 공유세는 증여세, 소득세, ③ 지방 고정수입은 토지사용세, 부동산취득세 등으로 구성될 것임.

-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① 예산 총지출에 증가나 감소가 있는 경우, ② 예산안정조정기금 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중점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채무(차입)가 증가하는 경우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주신 중국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우리 측에서도 한국의 예산안 심사제도 등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 근무시절 한국과 세수관련 논의는 많이 해왔으나 국회의 예산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한 부분이 많음.
- 중국과 한국은 의회·정당체제 등이 상이하여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 여·야 입장이 불일치할 때 예산정책처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함.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우리 예산정책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전문성·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중립성은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 연구자의 양심에 따라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뜻함. 처장의 역할은

직원들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본인이 뜻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생각함.

□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 여·야 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처장님의 책임감을 통감함. 이런 면에서 중·한 입법지원기관 간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중국 재정제도에 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오찬시간을 이용하여 추가로 설명하겠음. 다시 한 번 방중을 환영함.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양 기관 간 교류가 복원되어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단을 흔쾌히 초청해 주신 주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 참고자료 : 전국인민대표대회

□ 개요

- 중국의 형식상 최고권력기관으로 1954년 설립 / 성·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 우리 국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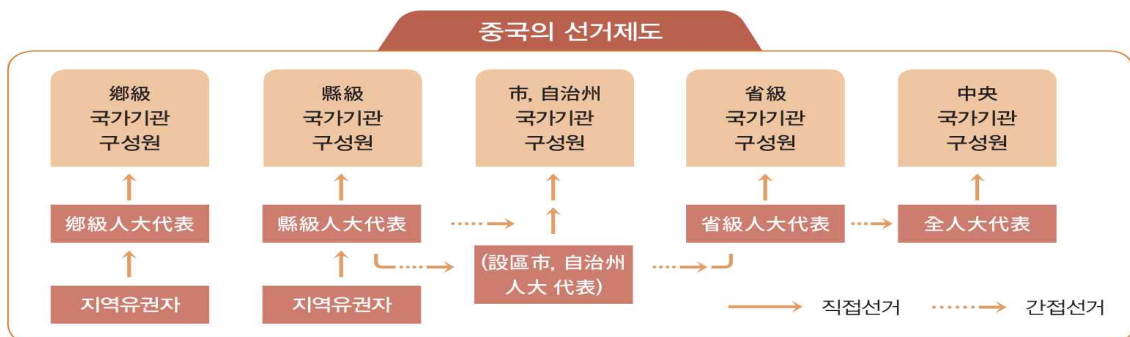
□ 대표 정수

- 전인대 대표 총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함('19.3. 개최된 제13기 전인대 대표 정원은 2,980명)

□ 임 기 : 5년

□ 선출방식

- 인민대표대회(人大)는 ①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②省·市·自治區·인민해방군 人大, ③縣·市 人大, ④鄉·鎮 人大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차하급 人大에서 차상급 인민대표를 해당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차액선거(후보자의 수가 당선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실시)
- 전인대 대표는 次下級 단위인 省·市·自治區·인민해방군 및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총 35개 선거단위)로부터 간접선거로 최대 3,500명까지 선출(대표의 약 70%가 공산당원)



※ 設區市 : 내부에 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로서 自治州급. 區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市는 縣급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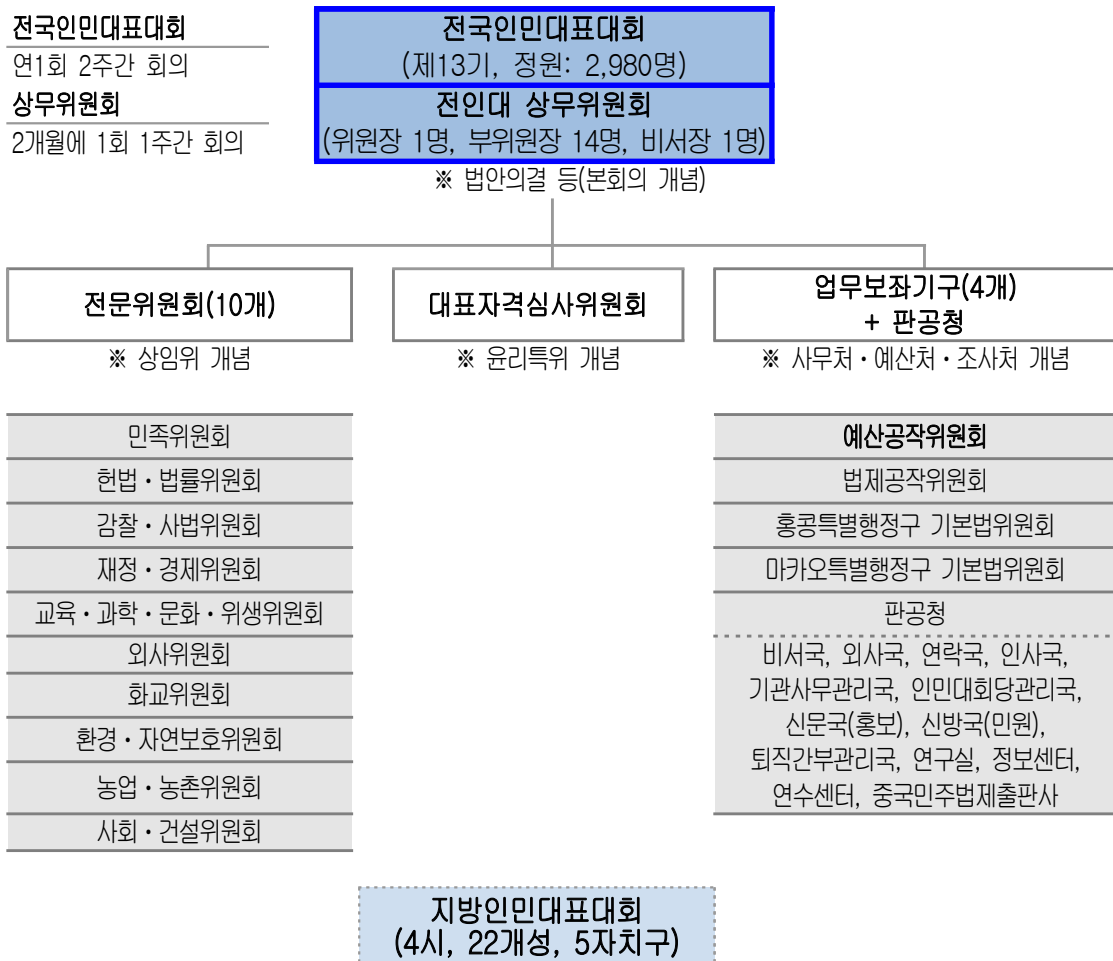
□ 전체회의 : 매년 1회의 전체회의를 가짐

- 소집 및 회기 : 매년 1회, 3월 중 소집하며 회기는 약 15일
- 전인대 대표 1/5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음

□ 구 성

- (지도부) 상무위원장(리잔수) 1명, 부위원장 14명, 비서장 1명
- (상무위원회) 전인대의 상설기관, 전인대가 1년 1차례밖에 개의하지 않으므로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의회의 업무를 맡음
- (전문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산하 10개의 전문위원회(우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를 설치하였으며, 전인대 대표 가운데 위원을 선출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도 >



□ 권 한

○ 입법권

- 전인대 : 헌법개정, 형사민사국가기구 등 기본법의 제·개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 기본법 이외의 법규 제·개정, 전인대 폐회기간 동안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 개정 등

○ 국가 및 재정통제권

-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시행상황에 대한 보고 및 심사
- 국가 예산 및 결산 비준 및 시행·감독

○ 인사권

- 국가주석·부주석 선출
- 국가주석의 제청으로 국무원총리 선출

3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주최 공식오찬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2:00~13:30
- 장소 : 전국인민대표대회 인민대회당
- 선물 : (아측) 청자운학문매병
(중측) 투명자수액자

나 주요 내용

- 예산공작위원회와의 면담이 종료된 후 대표단은 스야오빈 주임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여 환담을 나눔.
- 스야오빈 주임은 과거 방한 시 방문한 지역(부산, 제주도 등)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입법관 근무 시절의 베이징과 이번 방문에서 본 베이징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고 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은 스야오빈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의 방한을 정식으로 초청하였고, 이에 스야오빈 주임은 조만간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화답함.
- He Chengjun 예산결산심사국장은 오찬 중 전인대와 지방인대의 관계, 경제특구 및 자유무역구를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전략 등 공식면담 시 미처 설명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음.
- 예산정책처장과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의 선물교환을 끝으로 오찬이 종료되었음.

다 감사서한

대한민국 국회

중화인민공화국

스야오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임 귀하

존경하는 주임님,

저의 중국 방문 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따뜻이 환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국의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과 예산공작위원회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전인대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예산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국 재정전문기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신 오찬자리에서는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주임님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두 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굳건히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임님께서 편리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시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주임님의 건승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6. 17.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중문 번역본)

中华人民共和国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预算工作委员会主任史耀斌阁下

尊敬的史耀斌主任：

您好。衷心感谢您在我访问中国期间，百忙之中抽出时间给予热情的款待。

得益于您就中国财政制度的整体内容、预算编制与执行过程以及预算工作委员会的角色进行详细的介绍，使我对于全国人民代表大会审议批准预算的过程有了更深入的了解。尽管日程紧凑，我认为我们就拓展两国财政专门机构间的合作关系充分进行了对话。

特别是在您精心安排的午宴中，我深感主任您对于两国之间的关系发展给予极大的关切与热忱。真心期待双方机构能以本次会谈为契机，于今后进一步巩固双方间的定期交流。再次诚挚邀请您在方便时能拨冗至大韩民国国会预算政策处参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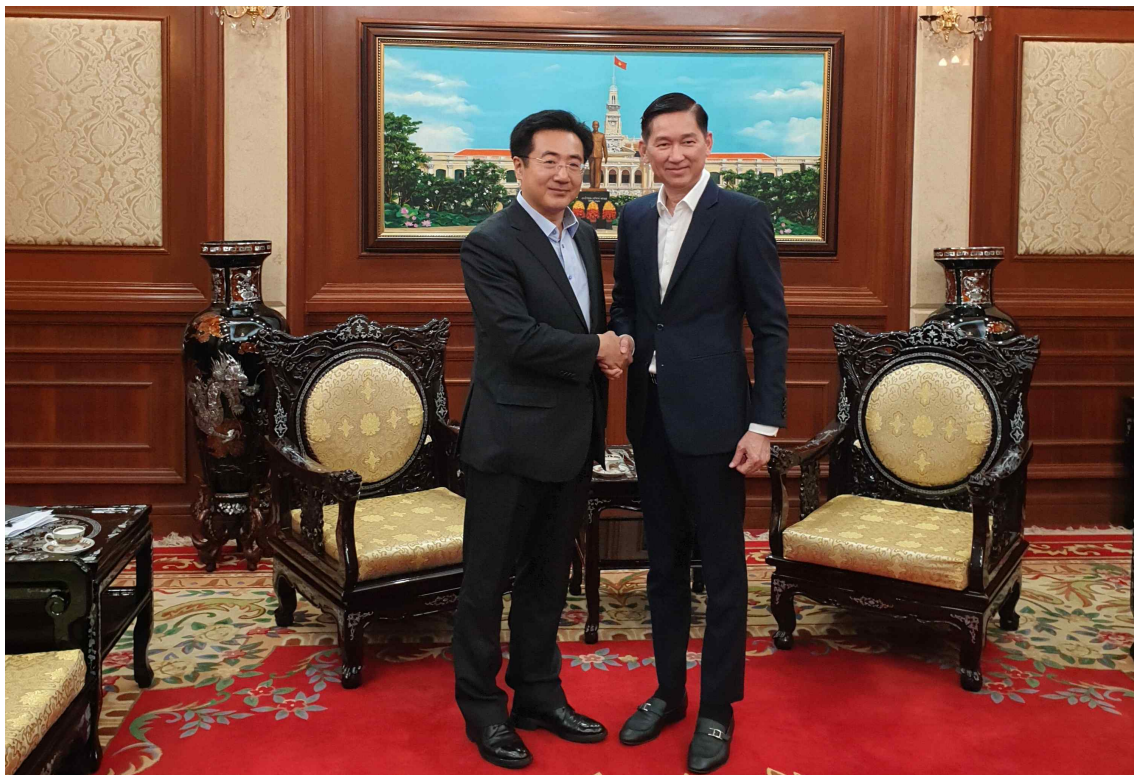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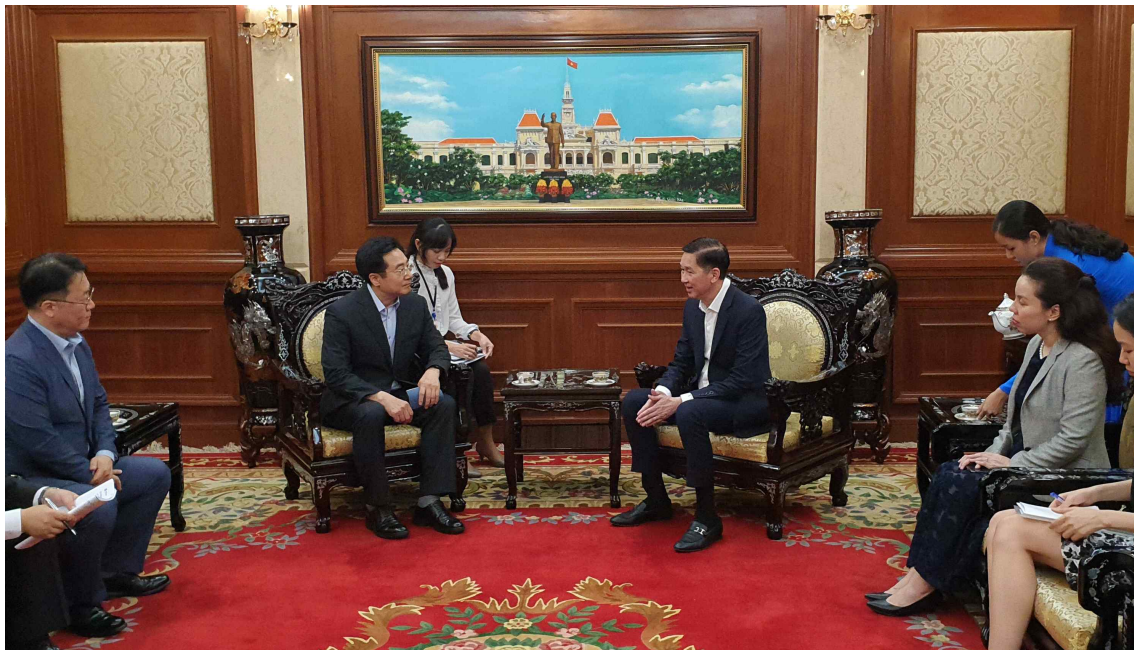
祝您身体健康，并祝全国人民代表大会永续发展。

2019年6月17日

韩国国会预算政策处处长李钟厚

4

편 빈 뚜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14:00~14:40
- 장소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1층 면담장
- 면담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부시장)		
성명	Tran Vinh Tuyen (쩐 빈 뚜엔)	
생년월일	1965.03.15. 꽝빈성 출생	
주요경력	1998 호치민시 1군 당사 사무국장 2002 호치민시 1군 인민위 부위원장 2009 호치민시 1군 상임 부당서기 2010 호치민시 1군 인민위 위원장 2013 호치민시 1군 당서기 201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2015 호치민시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6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 배석자

성 명	직 위
Pham Tran Thanh Thao	호치민시 외무국 의전장 겸 부국장
Nguyen Minh Phong	호치민시 외무국 과장

- 통역 : 아이 투 실무관(한↔베)
- 선물 : (아측) 청자 2인다기세트
(베측) 호치민시 기념책자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대표단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쩌 빈 뚜엔 부시장과 한-베, 한-호치민 간 주요현안에 대하여 면담하였음.
- 양측은 호치민시의 경제성장 및 도시발전을 위해 한국기업의 경험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2] 면담내용

- 쩌 빈 뚜엔 부위원장
 - 한국에서 방문하신 대표단 모두를 환영함.
 - 한국과 베트남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호치민에 연간 50억불을 투자하는 주요 투자국임.
 - 호치민은 인천, 부산 등 한국의 7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앞으로도 호치민시와 한국의 우호협력관계가 두터워지길 기대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부위원장님의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경제·문화·인적교류 등에서 큰 발전을 해왔음. 이러한 바탕에는 호치민시와의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 베트남 방문은 처음으로 눈부신 경제발전 중인 호치민을 체험해보고자 함. 오전에 거리의 많은 젊은 시민을 보고 활기찬 기운을 느꼈음.

□ 쩌 빈 뚜엌 부위원장

- 호치민시는 면적은 2,000km²이고, 인구는 비공식인구 포함 시 1,3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베트남의 경제중심지로서 전체 베트남 GDP의 27%를 차지함.
- 국가 예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전체 베트남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수입이 호치민시에서 비롯되는데, 지역별 예산배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8%에 불과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음. 중앙예산만으로는 도시발전에 충당하기 부족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통일 전부터 토지 등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였고, 특히 젊은 인력 등 인적자원이 풍부함. 7만명의 국립대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사립대까지 포함하는 경우 70만명의 대학생이 호치민에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에 필요한 세제 및 토지 지원도 활발함. 현재도 IT 분야에 인텔, 삼성 등 첨단기술 우수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침수·교통체증·환경오염·보건의료·교육 분야 등 현재 다소 미흡한 인프라를 해결하여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중임.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이 선구자로서 선진기술(기술자, 통신기업 등)을 전수해 주실 것을 희망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표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중 베트남은 핵심국가라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은 ASEAN 중에서도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국가로서 우리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 보건의료, SOC 등에서 우리 기업이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

유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토지문제 등을 좀 더 배려해 주시면 더욱 많은 기업이 투자할 것이라 생각함. 현재 신도시(투티엠) 등 도시개발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호치민이 명품도시가 되길 희망함.

□ 쩌 빈 뚜엔 부위원장

- 투티엠 도시개발과 관련 얼마 전 관련 문제들을 정리하여 중앙에 보고한 바 있음. 한국기업의 설계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공사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런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 공고화가 필요함. 양국이 협력하여 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쩌 빈 뚜엔 부위원장

- 스마트 도시개발, 교육분야 등 한국의 강점을 잘 전수받아 호치민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향후 상호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서로 고민하면서 상생을 모색하길 희망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베트남 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양국 간 협력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쩌 빈 뚜엔 부위원장

- 베트남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등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 남은 베트남 일정을 잘 마치시길 바람.

다 관련 보도자료

□ 호치민시 외무국 홈페이지

TPHCM mong muốn Hàn Quốc tăng cường hợp tác xây dựng đô thị thông minh, y tế, giáo dục thông minh

Cập nhật: 20:19 12-06-2019



Phó Chủ tịch UBND TP Trần Vĩnh Tuyến tiếp ông Lee Jonghoo

(Thanhuytphcm.vn) - Chiều 12/6, Phó Chủ tịch UBND TPHCM Trần Vĩnh Tuyến đã tiếp ông Lee Jonghoo, Chủ nhiệm Ủy ban Ngân sách Quốc hội Hàn Quốc đến chào xã giao.

Bày tỏ vui mừng khi quan hệ hai nước ngày càng phát triển tốt đẹp, Phó Chủ tịch UBND TP Trần Vĩnh Tuyến cho biết tại TPHCM, Hàn Quốc có 1.600 dự án đầu tư với tổng vốn là 5 tỷ USD. TP cũng thiết lập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với nhiều địa phương của Hàn Quốc và mối quan hệ ngày càng phát triển tốt đẹp. Phó Chủ tịch UBND TP Trần Vĩnh Tuyến hi vọng qua chuyến thăm, ông Lee Jonghoo sẽ tăng cường các hoạt động hợp tác giữa hai bên, đặc biệt là thông tin đến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những vấn đề TP quan tâm như xây dựng đô thị thông minh, y tế, giáo dục thông minh...

라 **참고자료 : 호치민시 약황**

□ 일반사항

- 인구 : 822만 명(2015년 공식인구)
- 면적 : 2,099km²(베트남 전체 33만 km²)
- 위치 : 베트남 북부의 중국 및 라오스 국경 근처의 곡창지대인 홍강델타 중앙에 위치
- 기후 : 열대 몬순 기후
 - 겨울에는 최저 25℃, 여름에는 40℃
 - 건기 : 5~11월, 우기 : 12~4월
- 행정구역 : 24개 구역(19군 5현으로 구성)

□ 역 사

- 1698년 베트남 중남부 지배자인 응웬(Nguyen)왕 때 이 지역에 현을 설치하여 자딘(Gia Dinh)이라 불렀으나 토착민(정착 중국인, 베트남인)들은 사이공(Sai Gon)으로 호칭
- 1859년 프랑스에 점령당해 코친차이나(현 호치민시와 인근 남부 베트남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동양의 파리’로 호칭
- 1945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항불 독립전쟁) 시 바오다이(Bao Dai)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이공을 수도로 결정
- 1975년 베트남 통일 전까지 남부 베트남의 수도
- 1976년 7월 국회에서 故 호치민 주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도시의 이름을 사이공에서 호치민으로 개명
- 1986년 실시된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통해 베트남 최대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

□ 정 치

- 시장격에 해당하는 인민위원장이 존재
-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인민위원장(호치민시 당 부서기)보다 서열이 높은 호치민시 당서기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
 - 당서기 : Nguyen Thien Nhan (응웬 티엔 년, 당 정치국원)
 - 인민위원장 : Nguyen Thanh Phong (응웬 타잉 풍)
 - 부인민위원장 : Le Thanh Liem (레 타잉 림), Le Van Khoa (레 반 콰), Tran Vinh Truyen (쩨 빈 뚜옌), Le Thi Thu (레 티 투), Huynh Cach Mang (후잉 카익 망)

□ 경 제(2018년 기준)

- 1인당 GDP : 약 7,089불(베트남 1인당 GDP : 2,587불)
- 경제성장률 : 9.6%(베트남 7.08%)
- 물가상승률 : 3.05%(베트남 3.54%)
- 외국인 직접투자 : 8,263건으로 총 450억 불(1988~2019.2.20. 누적)
- 호치민 인근 진출 한국 기업 수 : 약 1,500개

5

응원 특 하이 베트남 국회 재정에산위원장 면담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15:30~16:30
- 장소 : 베트남 국회 3층 재정예산위원회 회의실
- 면담자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성명	응웬 득 하이 (NGUYEN DUC HAI)	
생년월일	1961.07.29.	
주요경력	2006~2008 광남성 당부서기 및 인민위원장 2008~2016 제11대 중앙당원 광남성 당서기 제13대 국회의원 (외교위원회) 2016~현재 제12대 중앙당원 제14대 국회의원 (상무위원회 상임위원)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	

- 배석자

성 명	직 위
Dinh Van Nha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부위원장
Nguyen Minh Tan	국회 재정예산국 부국장
Vu Minh Dung	재정예산위원장 보좌관

- 통역 : 응안 실무관(한↔베)
- 선물 : (아측) 청자 2인다기세트
(베측) 베트남 국회마크 동판장식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대표단은 베트남 국회를 방문하여 응웬 득 하이 재정예산위원장과 한-베트남 주요 재정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면담 종료 후 대표단은 재정예산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베트남 본회의를 참관하였음. 동 위원장은 약 30분간 방청석에서 이종후 예산정책처장에게 베트남 본회의 운영상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이종후 처장은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한국과 베트남의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답하였음.

[2] 면담내용

- 응웬 득 하이 재정예산위원장
 - 한국 대표단의 베트남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함. 이 자리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참석자 소개)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소개)
 - 우리 예산정책처는 2004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재정전문기구로 설립되었음.
 - 예산정책처의 업무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뉨. ① 예·결산 분석업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규모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분

석하여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의견을 제시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우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함.

- ② 법률안 비용추계업무는 1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에 대해 향후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의 추계자료를 근거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
- ③ 경제동향 파악 및 경제지표 전망 업무는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과 별도로 독자적인 수치 및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음. 이는 대외에 공표되며, 국회에서 경제분야 논의 시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응웬 득 하이 재정예산위원장

- 한국 국회와 예산정책처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정예산위원회도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① 재정예산 관련 법률안 초안을 심사하고, ② 국가예산안을 심사하며, ③ 국가예산 집행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임.
- 우리 위원회는 총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됨. 이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한 10명의 상무위원은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위원회는 1년에 2회 열리고 각 회기는 1개월임. 위원회 논의 결과는 상무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4개의 분과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음. 예산결산위원회, 회계검사위원회, 공공투자위원회, 징수정책위원회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 소속기관으로 재정예산국이 있음. 이들은 4개의 분과 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함
- 예산정책처와 달리 우리 재정예산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경제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음. 국회에 경제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지금 국회가 회기 중으로 오늘도 2개 법안(세금관리법, 공공투자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길임. 공공재산관리법, 국채관리법 등 개정법률안은 현재 심사 중이고 향후 회계감사법 개정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우리 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재산관리와 국채관리에 대한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함. 이에 대해 베트남 국회와 한국 예산정책처 간 논의의 기회를 갖길 희망함.
- 우리 위원회의 목표는 법률 품질개선, 국제경제 협력, 국채관리, 공공재산 관리 등임. 특히 국제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삼성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등 베트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ODA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등 양국관계는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 감사드림. 한-베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봄.
- 거리에 활기찬 젊은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베트남 경제가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음. 앞으로 재정예산위원회에서 우리 투자기업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
-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제 독립재정기구 회의 등에서 꾸준한 만남을 통해 양 기구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기회를 갖길 희망함.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예산국에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0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함.

□ 응웬 득 하이 재정예산위원장

- 재정예산국은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뉨. 이들의 정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Dinh Van Nha 부위원장

- 아마도 재정예산국은 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들은 의안에 대한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간부진은 국장급 1인과 부국장 3인으로 구성됨.
- 예산정책처는 매우 큰 규모의 조직으로 알고 있음. 재정예산국과 별도로 국회 내에 입법연구원 90명이 근무하는 등 베트남은 인력은 많으나 분산되어 있어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우리 예산정책처도 처음에는 법제예산실에서 시작하여 예산정책국, 예산정책처로 조직을 확대하여 왔음.
- 앞서 말씀하신 국채관리, 공공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음.

□ 응웬 득 하이 재정예산위원장

- 본인은 금년 8~9월 경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베트남 중부 경제개발지역에서 한국으로부터 받은 ODA사업(종합병원, 3,500만 불 규모)과 관련된 사안임. 한국 방문 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처장님께 도움을 요청함.
- 한국과 베트남은 유사점이 많으므로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함. 다시 한 번 베트남 방문을 환영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한국에 오시면 정부기관 면담 주선 등 요청사항에 대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국회와 예산정책처도 방문해 주시면 환영할 것임. 다시 한 번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서한

대한민국 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응웬 득 하이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귀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의 베트남 국회 방문 시 베풀어주신 따뜻한 환대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국회 회기가 막바지여서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 대표단과의 만남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본회의 방청석에서 직접 베트남 국회에 대해 설명해주신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우리 대표단은 이번 출장에서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의회 재정전문기구 간 만남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베트남 국회 재정예산위원회를 이끌며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의 건승과 베트남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6. 17.

이 종 후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영문 번역본)

June 17, 2019

The Hon. Nguyễn Đức Hải
Chairman of the Finance and Budget Committe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ear Mr. Chairman,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you for the gracious hospitality that you extended during the visit of the NABO deleg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last week. It was a busy period at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session nearing its end. But you took your precious time out to receive my delegation and allowed us to have a meaningful and productive meeting. We were also deeply impressed when you gave us a personal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Visitors' Gallery of the Plenary Chamber.

Thanks to your kind consideration and support, my delegation was a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visit. Vietnam and Korea are the key partners for each oth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 am confident that the meeting between the parliamentary institutions dealing with public finance has served to strengthen our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Extending my utmost respect for your earnest endeavors to develop the nation in your capacity as the Chairman of the Finance and Budget Committee, I wish you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Vietnam continued success and prosperity.

Yours sincerely,

Lee Jong-hoo

Chief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Republic of Korea

라 **참고자료 : 베트남 국회**

□ 개 요

- 형식상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임
- 주요 권한
 - 헌법과 법률 제·개정 /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등 선출 및 해임 / 사면, 전쟁 선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 단원제, 임기 5년 (제14대 국회: 2016-2021년)
- 의원수 : 총 500명
 - 국회법상,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선거나 보궐 선거 없이 국회의원 수 그대로 유지
 - 현재 의원수는 491명(2017.7월 기준)
 - 선거(대선거구제) 결과 4석에 절차상 문제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2명은 각각 개인비리 및 이중국적 적발을 이유로 당선 취소되어 494명 의원으로 제14대 국회개원 → 이후 2명 사망, 1명 자진 사퇴
- 정기국회는 매년 2회(5월, 10월) 약 1개월 간 개최
 -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 개최 가능

□ 구 성

- 국회 상무위원회와 민족의회 및 9개 위원회로 구성
- 국회 상무위원회: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4명), 상임위원(13명)
 - 의 장 : 응웬 티 킴 응언(Nguyen Thi Kim Ngan)(여성)
 - 부의장 : 땡 티 풍(Tong Thi Phong) (du, 타이 소수민족 출신)
 - 도 바 띠 (Do Ba Ty) (총참모장(대장))
 - 퐁 꾸옥 히엔 (Phung Quoc Hien)
 - 우옹 쭈 리우 (Uong Chu Luu)
 - 상임위원(13명):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위원장 10명, 사무총장 1명, 당 대 중동원담당위원 1명, 국방부 차관 1명(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 민족의회(39명): 국회 및 정부 감사, 법률안 심사 기능
- 9개 위원회 : ①법률위원회, ②사법위원회, ③경제위원회, ④재정예산위원회, ⑤국방안보위원회, ⑥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 ⑦사회문제위원회, ⑧과학기술환경위원회, ⑨대외관계위원회

□ 베트남 중앙예산 편성 및 승인과정

- 중앙예산은 매년 5월에 시작되어 12월 31일 이전에 마무리 됨
 - 5월 : 총리는 차년도 국가예산의 준비에 관한 지침을 발행
 - 7월 : 정부 부처와 중앙정부 기관은 차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이를 계속지출의 경우는 재무부(MOF)에, 자본지출의 경우 기획투자부(MPI)를 통해 총리에게 제출함
 - 8월: 재무부와 각 부처 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함
 - 9월: 중앙정부는 국회에 중앙예산 및 지방예산을 제출함
 - 11월 15일 이전 국회는 국가예산과 중앙예산 배분 계획의 총계를 승인
 - 11월 20일 이전 총리는 각 부처, 장관기관(ministerial agency), 다양한 정부기관, 그리고 다른 중앙정부 기관에 예산 수입과 지출을 배정함
 - 12월 31일 이전 각 부처, 장관기관, 정부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은 예산을 각 하위기관과 부서에 배정함

6

KOICA 현지사업 보고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가 개 요

[1] KOICA 베트남 협력사업 현황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09:30~10:00
- 장소 : KOICA 베트남 사무소 회의실
- 보고자 : KOICA 베트남 사무소 김진오 소장

[2]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사업현장 방문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0:30~11:30
- 장소 : 하노이 Hoa Lac Hi-Tech Park 내 VKIST 건설현장
- 보고자 : 현장사업 CM (포스코A&C)

[3] KOICA 현지직원 격려오찬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2:00~13:00
- 장소 : 경남 랜드마크72 내 한식당 고궁
- 참석자 : 김진오 소장, 임인영 차장(부소장), 조정명 과장(부소장), 양규모 과장, 이효진 개발협력코디네이터 / 권오정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대표단은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를 방문하여 김진오 소장으로부터 대 베트남 협력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 브리핑 종료 후 대표단은 코이카 최대 협력사업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함.
 - 질의응답 시 건설사업 진척도 및 현지 인력운용 상의 애로점, VKIST 건설완료 이후 우리 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가진 규정·시스템 전수방안, 베트남 내에 운영 중인 기존 연구소(BAST 등)와의 차별성·독자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사업현장 방문 이후 대표단은 하노이 시내로 복귀하여 현지에서 근무하는 KOICA 직원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하였음.

(2) KOICA 대 베트남 협력사업 현황

- KOICA 베트남 사무소 일반현황
 - 연혁
 - 1994. 7.18 사무소 개소
 - 1996. 5.31 사무소 이전(대사관내)
 - 2002. 9. 1 사무소 이전(대우빌딩 7층)
 - 2013. 4. 1 사무소 이전(경남랜드마크 72 18층)
 - 2017. 2. 27 김진오 소장 부임

○ 지위

- (주재국내 지위) 양국 무상원조기본협정(2009년 발효)에 근거하여 베트남 외교부 리스트에 'KOICA Vietnam Office'로 등재
- (신분상 지위) 사무소 직원은 관용여권 소지
- (대사관 관계)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재외공관장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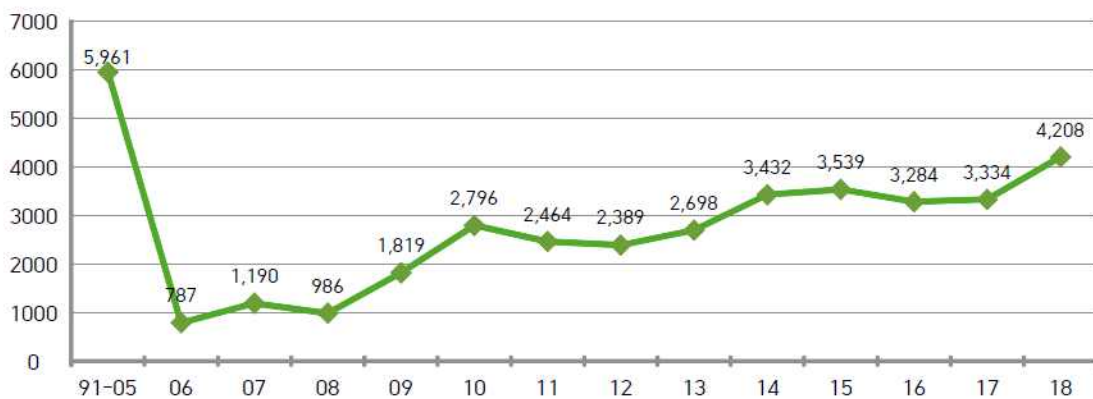
○ 인원 : 34명

- 정규직(7명) : 김진오 소장 외 6명
- 계약직(8명) : WFK 코디네이터 권우리 외 5명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이효진 외 1명
- 현지직원(19명) : 행정직(11명), ODA전문가(3명), 운전기사 등(5명)

□ 대 베트남 지원실적

○ (현황) 1991~2008년까지 총 3억 8,889만불 지원

-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3,559만불
- 2018년 4,208만불 지원



○ 분야별 지원실적

- 교육: 32.85%(12,774만불)
- 보건: 18.31%(7,120만불)
- 공공행정: 17.94%(6,978만불)

- 기술환경에너지: 19.52%(7,590만불)
- 기타: 농림수산, 긴급구호 11.38% 등

○ 유형별 지원실적

- 프로젝트 : 66건 20,957만불
- 개발컨설팅 : 25건 4,040만불
- 초청연수: 4,747명 2,864만불
- WFK : 7,386명 7,683만불
- 민관협력 : 199건 2,845만불
- 기타 : 물자지원, 긴급원조, 국제기구 등

□ 2019년 주요 사업계획

○ 중점지원방향

- 베트남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부문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인 여성보호 및 베트남 정부의 지뢰 및 불발탄 제거를 통한 베트남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

○ 주요사업

- (V-KIST 설립사업) 시공사 선정 완료(영진종합건설) 및 2018.10월 부지 공식 핸드오버 후 착공/시공중
- (베트남 행복프로그램) 주민 생활개선 및 자치역량 강화 완료, 소득증대사업 상환 실시
- (베트남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 공식 사업착수(2018.3월), 지뢰/불발탄 탐지 및 제거 기자재 기증
- (이주로 인한 베트남 사회 취약계층 여성 및 가구 지원사업) 2018년 대통령 국민 방문 공약사업으로 2019년 전략사업비 반영, 심층기획조사 실시

다 참고자료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사업
※ VKIST :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목적 : 베트남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국가발전단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 사업기간/사업비 : 2014-2020/3,500만불
- 사업시행기관 : (한국) KOICA-KIST(공공협력사업)/(베트남)과학기술부
- 대상지역 : 베트남 하노이 Hoa Lac Hi-Tech Park (하노이 서쪽 30km거리)

□ 사업배경

- 베트남의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요청에 따라 2013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2013.9.9.) 채택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공동성명 (한국, 2013.9.9.)

2-3-2. 양측은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학기술 융성이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KOICA 사업으로 추진될 베트남 과학기술 연구원(VKIST) 설립을 위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양국 개발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 노력 언급

* 한-베트남 미래 지향 공동선언 (한국, 2018.3.23.)

13. (개발협력) 베트남 지도부는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이 베트남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중략) 양국정상은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베트남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사업추진 경과

- 베트남 응우옌떤중 총리, 방한시 KIST 모델 연구소 설립 요청 ('12.3.28)
- 양국 정부간 VKIST 사업 시행약정 체결 ('13.9.9)
- 한국 KOICA-베트남 과기부 간 협의의사록(ROD) 서명('14.10.21)
- KIST-KOICA 간 사업약정체결(140억원, '14.12.26)
- 베트남 정부 VKIST 총리령(Decree) 발효('15.7.15)
- 베트남 과기부 장관 VKIST 훈령 승인('17.05.11)
- VKIST 초대원장 선임('17.4.10.) 및 임명('17.05.12)
- VKIST 착수보고회 개최 ('17.11.21)
- VKIST 착공식 개최 ('18.3.22) / 문재인 대통령 및 당 티 응옥 부주석 참석
- VKIST 시공사 선정 및 착공 ('18.8/ 영진종합건설)
- 2019.6.8. 기준 공정률 18.48%

□ 2019년 주요 추진 계획

- (건축) 건설 관리 지속 : 2019년 말까지 56% 공정 진행 예정
→ 2020년 말까지 완공 예정
- (연구장비 및 기자재) VKIST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및 연구 계획에 따른 연구 장비 구매 계획 수립
- (내부규정 수립) 근무, 인사, 평가, 연구관리 등 내부 규정 작업 진행
- (역량강화) 중기 초청연수 (60일간) 1회 및 단기 초청연수 진행

□ 사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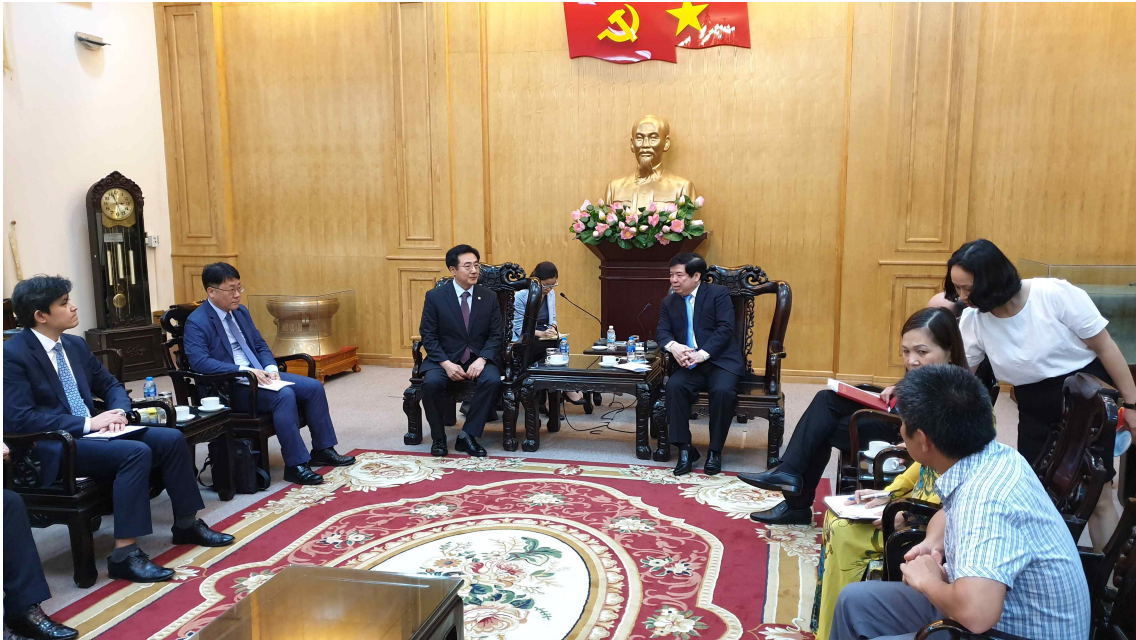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베트남의 변화된 국가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ODA로 추진
 - － 미국의 원조로 설립되어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KIST의 경험 활용

- VKIST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진출 효과
 - VKIST를 매개체로 한국-베트남 기업 간 기술이전 및 비즈니스 협력강화
 - 베트남의 인력자원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베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이전 성과 창출

- 베측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 VKIST의 연구개발 수행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베트남 국가경제개발 선도
 - 장기적으로 VKIST는 연구개발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원천기술 개념이 숙지된 고급기술개발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기술인력을 공급

□ 공사현장 (2019.6.7. 기준)





가 개 요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5:00~15:30
- 장소 :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1층 면담장
- 면담자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원장		
성명	응웬 비엣 타오 (NGUYEN VIET THAO)	
생년월일	1960.05.12. 박닌성 출생	
학력	1999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박사(역사학)	
주요경력	2003~2005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상임대표 겸 총장	
	2005~2010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정치이론매거진 편집장	
	2010~2012 공산당 중앙선전위원회 전자신문실장 편집위원	
	2012~현재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원장	

- 배석자

성 명	직 위
Hoang Van Nghia	국제협력국장(부교수, 박사)
Nguyen Chi Huong	사무국장(박사)
Le Van Chien	공공정책연구소 과장(부교수, 박사)
Ngo Tuan Nghia	정치경제연구소 부교수(박사)
Nguyen Thi Hong Van	국제협력국 부국장(박사)

- 통역 : 응안 실무관(한↔베)
- 선물 : (아측) 청자 2인다기세트
(베측) 베트남 지도 동판장식

나 주요 내용

(1) 요 약

- 대표단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응웬 비엣 타오 부원장과 면담하였음.
- 이번 방문은 2017년 레 꾸옥리(Le Quoc Ly) 부원장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서 두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2) 면담내용

- 응웬 비엣 타오 부원장
 - 우리 기관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는 중앙집행위원회 직속기관으로 당 고위간부를 양성하고 있음. 스스로 높은 위치를 갖는 기관이라고 자신함. 현재 각 부처와 같은 장관급 기관으로 대우받고 있는데 부총리급(중앙정치국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22개 산하 연구원과 11개 국에 2,5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정부부처의 부국장부터 차관급까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하노이·호치민·다낭·껀터 등 4개 지역에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3만 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세계유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제협력 시스템도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음. 특히 KOICA 지원으로 한국 연국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제12차 간부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200명의 중앙위원 중 12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삼성전자의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회·일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베트남 공직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 처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많은 한국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싶음. 한국이 우리 기관에 추가적인 학술연구를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증진에 있어 예산정책처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가 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부원장님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부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귀 기관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설명을 듣고 나니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가 베트남 경제발전과 인재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과 베트남은 정치적, 학술적, 인적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국회와 베트남 국회는 양국 의장 간, 의원친선협회 간 빈번히 교류하고 있음. 우리 예산정책처의 방문도 이러한 교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2017년에 레 꾸옥 리 부원장님께서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는데, 이 때 베트남 방문 기회가 되면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여 주셔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음. 우리 기관의 방문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참석자 소개)
- 우리 예산정책처는 2004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재

정전문기구로 설립되었음. 처음에는 70명 규모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정원 138명으로 독립재정기구 중에서는 미국의 CBO 다음으로 큰 규모임.

- 예산정책처의 업무는 크게 ① 예·결산 분석업무, ② 법률안 비용추계 업무, ③ 경제동향 파악 및 경제지표 전망 업무의 3개 분야로 나뉨.
- 본인이 귀국하면 한국 연구기관과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간 학술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더욱 논의해 보겠음.

□ 응웬 비엣 타오 부원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중임. 베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진 경험을 배우고 싶음.
- 우리 기관에도 재정 및 금융 분야를 연구하는 업무가 있음. 특히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재정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향후 한국 국회에서 출장오시는 전문가가 있으시면 재정·금융관리에 관한 이론을 발표해 주셨으면 함.
- 한국의 지식과 경험은 베트남에 대단히 소중함. 그런데 우리 기관에는 석사·박사 출신의 연구자들이 250명에 달하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유학한 연구인력은 많지 않음. 앞으로 한국의 대학·연구기관·교육기관들과도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싶음.
- (참석자 소개)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우리나라의 대학·연구기관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호치민 정치아카데미와도 많은 교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봄. 한국에 돌아가면 관련 기관들에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 응웬 비엣 타오 부원장

- 다시 한 번 처장님의 베트남 첫 방문을 환영하며 남은 일정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람.

□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 환대에 감사드리며 부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함.

다 참고자료 : 호치민시 국립정치아카데미

- 1959년에 설립되어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육과 언론·행정·법률·정치 등의 체계적 연구 및 교육과정 제공, 세미나 개최, 해외 대학교 및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베트남의 대표적 정책연구 및 교육담당 정부기관임
-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설립되어 베트남 사회주의 확립에 기여하였고 당과 국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음
- 설립 후 60년간 약 30만 명의 베트남 고위 공무원을 배출하였고, 6000여명의 라오스 및 캄보디아 인민당 간부들도 육성함
- 베트남의 사회주의 혁명에 관련된 수백 권의 교과서 및 수천 개의 논문을 집필·출판하였고 호치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공산당의 이론 확립 및 정책 자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베트남 내에 4개의 캠퍼스가 있음
 - 정치아카데미 지역 I (북부): 하노이 소재
 - 정치아카데미 지역 II (남부): 호치민 시티 소재
 - 정치아카데미 지역 III (중부): 다낭 소재
 - 정치아카데미 지역 IV (중남부): 껀터 소재
- 19개의 연구 기관으로 구성되어있음

호치민 국립 정치아카데미 연구 기관		
- 철학 연구소	- 종교 · 신앙 연구소	- 사회학 연구소
- 정치경제학 연구소	- 정치과학 연구소	- 공공정책 연구소
- 경제학 연구소	- 국가 · 법률 연구소	- 리더십 트레이닝 · 교육 기관
- 사회주의 연구소	- 문화 · 개발 연구소	- 과학 정보 기관
- 호치민 사상 연구 기관	- 국제관계학 연구소	- 정치 이론 학술지
- 당 역사 연구 기관	- 인권 연구소	- 정치 연구 출판사
- 당 설립 연구 기관		

I. 외교부 약항자료

< 일반사항 >

- 국 명: 中華人民共和國
- 건국일: 1949.10.1(국경일)
- 수 도: 베이징(北京)
- 면 적: 약 960만km²(한반도의 약 44배)
- 인 구: 약 13억 9,538만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 민 족: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 183만명(소수민족의 1.6%)
- 표준어: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 정 치 >

- 정 체: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 행정구역: 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유엔가입: '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 국 방 >('18년)

- 총병력: 약 204만명(무경 약 66만명 별도, Military Balance)
 - 육군 97.5만명, 해군 24만명, 공군 39.5만명, 로켓군 10만명, 전략지원부대 17.5만명, 기타 15만명
- 국방예산: 약 1,750억불

< 경제현황 >('18년)

- 화폐단위: 元(1\$ = 약 6.756元, '19.1.14기준, 인민은행)
- 외환보유액: 3조 727억불('18.12 국가외환관리국)
- 교역규모: 4조 6,230억불(해관총서)
 - 수출: 2조 4,874억불
 - 수입: 2조 1,356억불
 - 수지: 3,518억불 흑자
- GDP: 90조 309억 위안(중국국가통계국)
- 1인당 GDP: 8,827불(World Bank)('17년)
- GDP 성장률: 6.6%(국가통계국)
- 산업비중: 1차 7.2%, 2차 40.6%, 3차 52.2%

< 최근 국내정세 >

- 2013. 3월 제12기 1차 전인대 개최
- 2013.11월 제18기 3중전회 개최
- 2014. 3월 제12기 2차 전인대 개최
- 2014.10월 제18기 4중전회 개최
- 2015. 3월 제12기 3차 전인대 개최
- 2015.10월 제18기 5중전회 개최
- 2016. 3월 제12기 4차 전인대 개최
- 2016.10월 제18기 6중전회 개최
- 2017. 3월 제12기 5차 전인대 개최
- 2017.10월 제18기 7중전회 개최
- 2017.10월 제19차 당대회 및 제19기 1중전회 개최
 - 시진핑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주석 연임
- 2018. 1월 제19기 2중전회 개최
- 2018. 3월 제13기 1차 전인대 개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주중대사관 연혁
 - 1992.8.24 수교 / 8.27 한국대사관 개설
- 최근의 고위급 인사교류
 - 2008. 8월 胡錦濤 국가주석 국빈방한
 - 2008. 9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장애인올림픽 개막식)
 - 2008.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ASEM 정상회의)
 - 2009. 6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III 참석)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중·일 정상회의)
 - 2009.12월 習近平 국가부주석 방한
 - 2010.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 2010. 5월 溫家寶 총리 방한
 - 2010.11월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G20 정상회의)
 - 2011. 4월 김황식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 2011.10월 李克強 상무부총리 방한
 - 20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중

- 2012. 3월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핵안보정상회의)
- 2012.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일·중 정상회의)
- 2013.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
- 2014. 4월 정홍원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 2014. 7월 習近平 국가주석 국빈방한
- 2014.11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APEC 정상회의)
- 2014.12월 정의화 국회의장 방중
- 2015. 6월 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2015. 9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중국 건국 70주년 기념행사)
- 2015.10월 李克強 총리 방한(한·일·중 정상회의)
- 2016. 6월 황교안 국무총리 방중(하계 다보스포럼)
- 2016. 9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G20 정상회의)
- 2017.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 2018. 2월 韓正 상무위원 방한(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 2019. 6월 문희상 국회의장 방중

○ 대중국교역('18년, 한국무역협회)

- 교역: 2,686.4억불(무역수지 557억불 흑자)
- 수출: 1,621.6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수입: 1,064.8억불(반도체, 컴퓨터)
- ※ '18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
- '17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 교역대상국 3위(홍콩 제외)

○ 대중국투자('18.9월, 신교역기준): 37.6억불(한국수출입은행)

- '68 ~ '18.9월까지 누계: 829억불

○ 인적교류: 총 803.3만명('17년 한국관광공사, 중국통계연감)

- (방중 386.4만명, 방한 416.9만명)
- 유학생('18.1 기준, 교육부): 한국내 중국유학생 68,537명
- 중국내 한국유학생 63,827명

○ 체류자수

- 한국체류 중국인 약 107만명
- (중국통보 약 72만명 포함)('18.11월 기준, 법무부)
- 중국체류 한국인 약 35만명('16년말 제외공관 조사 기준)

○ 항공편수: 여객 주 1,080회(우리측 66개 노선 주 546회,

- 중국측 48개 노선 주 534회)
- ('18.9월 기준, 한국공항공사)

< 중·북한 관계 >

○ 주요 관계

- 1949년 수교
-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인민지원군 파견
- 1961년 「중북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 최근 중·북한간 고위인사 교류 실적

- 2012. 4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2012. 7월 이명수 노동당 중앙장학위원 겸 인민보위부장 방중
- 2012. 7월 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 방북
- 2012.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 2012.11월 李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북
- 2013. 5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중
- 2013. 7월 李源潮 국가부주석 방북
- 2015. 9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중
- 2015.10월 劉雲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2017.11월 宋濤 시진핑 총서기 특사 방북
- 2018.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2018. 5월 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 2018.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2018. 5월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중
- 2018.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2018. 9월 栗戰書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2018. 12월 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 2019.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 교역액: 약 50.55억불('17년, 중국 해관신식망)

II. 정치 · 경제 현황

1. 정치체제

□ 국가기구

○ 개 요

- 국가최고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의 국회에 해당)
- 국가최고행정기관 : 국무원
- 국가최고군사기관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기 구	구성 및 주요 권한·기능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大)	- 형식상 최고권력기관(국회에 해당) / 상설기관은 「상무위원회」 - 전국 33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 헌법의 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선출 등
국가주석	- 全人大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임기 5년으로重任 가능 - 국가를 대표, 특사령·계엄령·선전포고·동원령공포 등
국무원	- 全人大의 집행기관 및 최고 국가행정기관 -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원 5명, 비서장(국무위원 겸임) 1명, 各部委委員會 부장 및 주임 28명으로 구성 - 임기 5년 (총리, 부총리, 국무원의重任 가능)
국가중앙군사위원회	- 전국 병력 지휘 / 구성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동일 / 임기 5년
인민정치협상회의 (政協)	- 정책자문기관 / 대만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 공산당

- 설립 : 1921.7.1
- 당원 : 약 8,956.4만명('17년말 현재)
- 조직과 권한

전국대표대회 (당대회)	- 당의 최고권력기관, 5년마다 개최('17.10. 제19차대회) - 당의 중요정책 토의 및 결정, 당헌 개정
중앙위원회 (총서기 : 習近平)	- 전국대표대회의 폐회중 黨활동 지도 - 총 376명(위원 204명, 후보위원 172명) -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매년1회) 폐회시 「중앙정치국」(총 25명)이 전권을 행사하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중국 최고권력기관 ※ 상무위원 7명 : 習近平, 李克强, 栗戰書, 汪洋, 王滬寧, 趙樂際, 韓正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 習近平)	-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을 지휘·통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趙樂際)	- 黨憲과 기타 규칙·제도 수호 및 黨風 정돈

2. 정치정세

□ 시진핑 집권 2기

- (총평) 제19차 당대회('17.10월) 및 양회('18.3월)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 인선 및 정책 기조가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가일층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
- (인선 동향) 2017년 제19차 당대회 시 黨 핵심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과 軍 수뇌부인 중앙군사위 내 시진핑 계열 인사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관례와 달리 차기 지도부 후보군은 미선출

- 2018년 양회 시 △헌법상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장기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진핑 최측근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여 국정영향력 강화
- (정책 기초) △시진핑 통치이념(“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헌 및 헌법상 지도사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개헌 및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모든 영역에 대한 당의 지도”를 명확화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이름	정부 직위	당내 직위
①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 /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총서기/ 당중앙 군사위 주석
② 리커창 (李克強)	국무원 총리	상무위원
③ 리잔수 (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상무위원
④ 왕 양 (汪 洋)	정협 주석	상무위원
⑤ 왕후닝 (王滬寧)	-	중앙서기처 서기 /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 상무위원
⑥ 자오러지 (趙樂際)	-	중앙기율위 서기 / 상무위원
⑦ 한 정 (韓 正)	국무원 상무부총리	상무위원

□ 2019년 양회(3.3-15) 주요 결과

- (총평) 경제·사회·민생 등 주로 국내문제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외교 및 국방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것으로 평가
- (경제·환경) △경제하방 압력 인정 △감세·재정정책 추진 △거시경제 정책에 취업 포함 △환경정책 정부업무보고 10대 정책에 신규 추가 △경제발전·환경개선 병행 추진 △과학기술 혁신 지원
- (대외) △개도국 지위 강조 △ 외상투자법 입법, 지적권 보호 강조, 위안화 평가절하 지양 선언 △유럽 및 주변국과의 협력 의지 강조
- (국방) △‘강군’ 목표 강조 △국방예산 7.5% 증가(1조 1,899억 위안, 약 1,770.65억불)

3. 경제현황

【경제 개관】

- 중국은 '78년 덩소평 집권이후 '흑묘백묘론'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완성되는 개혁·개방정책 추진
-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도입을 위한 제도 개혁 지속
 - 외자유치 촉진, 이중환율제 폐지와 경상거래 자유화, 민영기업을 위한 회사법 제정,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
-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과 대외개방 가속화
 - WTO 가입('01)에 따른 중국시장 개방, 국유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환율제도 개편, 물권법·반독점법 제정
-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다만, 그동안의 수출주도형·외자의존형 양적성장전략에 수반되는 지역·계층·노동 간 소득 격차확대, 환경·에너지보전과 성장과의 부조화 등 문제 노정

【경제 정책】

- 「제13차 5개년 계획('16-'20)」을 통해 향후 5년을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위한 핵심 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 등 5가지 발전이념 제시
 -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의료, 문화, 환경 등이 고루 발전된 사회
 - (3대 발전전략) 일대일로 건설, 장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협력발전, 장강 경제벨트 건설

- 시진핑 주석은 '17.10월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안정 속 발전'을 주요 기조로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관리, 일대일로 등에 중점을 두고 「제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혁신기술 및 친환경산업 발전을 지속 장려하고, 외자유치 확대 및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참여(혼합소유제) 등을 통해 구조개혁 지속 예상
- 2019.3월 중국은 양회(兩會)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2019년 성장 목표치를 6-6.5%로 하향 조정하고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 발표
 - 2018년 중국경제는 연간 6.6% 성장률을 기록하여 연초 목표치인 6.5%를 상회 달성하였으나, 성장속도는 28년 만에 최저수준
 - GDP 목표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경제 둔화, 중국내 경기하방 압력 등 대내외 불확실성 반영

4. 대외 관계

- 중·미 관계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미간 갈등 전선이 통상·대만·남중국해 문제에서 인권·4차산업·미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문제 등 전방위로 확대 추세
 - 작년 △6개월만의 중·미 정상통화 성사(2018.11.1) △연기되었던 제2차 중·미 외교안보대화 개최(2018.11.9) 및 △G20 계기 중·미 정상회담(2018.12.1)에서 '90일 무역협상'에 기반한 휴전 합의 후 3차례 고위급 협상 등 양측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갈등 봉합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

□ 중·일 관계

- 시진핑 집권 초 영토·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나, 작년 5월 리커창 총리 방일에 이어, 10월 아베 총리 중국 공식방문을 통해 중·일 관계의 정상궤도 복귀 평가
- 올해 6월 오사카 G20 계기 시진핑 주석의 양자 방일 성사

□ 중·북 관계

- 시진핑 집권 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중국의 강력한 對北 제재 결의 동참으로 소원했던 중·북 관계는 김정은의 4차례 방중('18.3월, '18.5월, '18.6월, '19.1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된 것으로 평가
 - －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對北 결의를 충실히 이행중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및 민생 발전에 대한 지원 의지 또한 표명중
 - － 올해는 중·북 수교 70주년으로서, 과거 수교 60주년('09)과 유사한 활발한 교류 전망 (60주년 당시 ▲'중북 우호의 해' 지정 ▲정상간 축전·친서 교환 ▲총리간 상호방문)

Ⅲ.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경제관계

【 교 역 】

- 한국과 중국간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약 42배 증가('92년 63억불→'18년 2,686억불)
 - 2018년 대중국 교역규모 2,686억 달러(중국통계 3,134억 달러), 대중수출 1,621억 달러, 수입 1,065억 달러, 흑자 556억 달러
 - 2018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
 - 2018년 기준, 한국은 미국(6,335억 달러), 일본(3,277억 달러)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출처 : 중국 해관총서)
- 미·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중 수출(1,621억불)은 사상 최대 기록 갱신
 -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 등으로 반도체·석유제품·합성수지 중심의 수출 호조세 지속
 - 역대 대중 수출액 상위 기록(억불) : (2위) 2013년 1,458.7, (3위) 2014년 1,452.9
 - 2018년 수출액/증감률(억불, %) : (반도체) 522.1(32.7), (석유제품) 91.2(41.5), (합성수지) 76.1(8.2)
 - 그러나 글로벌 및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단가하락 및 시장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8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지속 하락세
 - 전년 동월 대비 대중수출 증가율(%) : ('18.10)17.4%→ ('18.11)△3.2%→ ('18.12)△14.0%→ ('19.1)△19.2%→ ('19.2)△17.4%
- 대중국 교역 주요품목 (2018)
 - 수출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54%를 차지

- 수입 :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37%를 차지

【투 자】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투자대상국
 - 2018년 대중국 투자액 56.6억 달러(신고기준)
 - 2018년까지 대중국 투자 누계액은 848억 달러(신고기준)
 - －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우리의 해외투자 총 누계액의 14% 점유)
- 중국의 대 한국 투자(신고기준)는 (‘14)11.9억 달러, (‘15)19.8억 달러, (‘16)20.5억 달러, (‘17)8.1억 달러, (‘18)27.4억 달러
 - 2018년까지 투자 누계는 137.1억 달러
 - － 외국의 전체 대 한국 투자 중 9위

2. 문화협력

- 사드 국면으로 축소되었던 양국 문화협력은 한중 정상회담(‘17.12월) 이후 회복 추세
 - 양국 문화협력은 1992년 수교 이래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확대, 특히 K-pop, 한식, 영화·드라마 등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 다대
 - 단, 사드 국면 등으로 한국 영화·드라마 상영 및 대형 상업 공연 개최 제한 등 문화교류가 축소
 - 2017.12월 한중 정상회담 이래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
 - － 한국 문화행사 개최, 문화산업 행사 참여 및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상시 전파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이해를 꾸준히 확대

- 작년 각종 한국문화 행사 개최(한중 우호주간, 한중일 예술제, 베이징 빙설 축제, 리장·둔황 등) 및 문화산업 행사 적극 참여(베이징 국제영화제, 국제 도서전, 차이나조이 게임 전시회, 문화박람회 등)

□ 특히 금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 등과 적극 연계하여 문화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충청지역 문화공연(4.10-11), 문화원 내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계기 자료사진전(3.29-4.30), 특별 영화전(3월중 총 4회) 등 개최

□ 사드 국면으로 축소되었던 방한 중국인 규모도 한중 정상회담(17.12월) 이후 회복 추세

- 양국 인적교류는 1992년 수교 당시 상호방문 13만명 수준에서 2016년 방한 중국인 수 800만명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
- 사드 문제 발생 후 2017년 방한 중국인 규모는 417만명 수준으로 축소
- 2017.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2018년 방한 중국인 규모는 479만명 수준으로 반등
- 향후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개최 지원 및 문화원·관광공사 등을 통한 한국 문화관광 행사 개최, SNS 활용 홍보 등을 통해 한중 관광협력 확대 계획

□ 중국인의 여행 형태 변화를 반영한 관광 상품 다변화 필요

- 중국인 여행 형태가 과거 단체관광 위주에서 개별여행객 증가 등 다변화하는 추세
- 이에 맞춰 저가 단체여행 위주의 방한 관광 역시 개별여행객 중심의 중고가 문화체험 관광으로 발전 필요

I. 외교부 약황자료

□ 일반사항

- 공식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수 도 : 하노이(Ha Noi, 인구 722만명)
- 인 구 : 9,270만명(2016.베트남통계청)
- 면 적 : 330,341km²(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비엠티족(86%) 외 53개 소수민족
- 행정구역 : 5개 직할시, 58개 성
- 종 교 : 불교(12%), 가톨릭(7%)등
- 시 차 : 우리시간 - 2
- 언 어 : 베트남어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공산당 1당제
- 의회구성 : 임기 5년 단원제(의석수 500)
 - 현 제14대(16-21년) 국회의원 491명
- 국가 지도자 (집단지도체제)
 - 당서기장겸 국가주석 : 응웬 푸 쩡(11.1 취임)
(Nguyen Phu Trong)
 - ※ 국가주석직은 18.10부터 겸임
 - 총 리 : 응웬 쉐언 푹(16.4 취임)
(Nguyen Xuan Phuc)
 - 국회의장 : 응웬 티 김 응언(16.3 취임)
(Nguyen Thi Kim Ngan)

□ 경제현황(2017.EIU)

- GDP : 2,152억불
- 1인당 GDP : 2,301불
- 연간 교역액
 - 수출 : 1,968억불
 - 수입 : 1,928억불
- 경제성장률 : 6.5%
- 물가상승률 : 2.66%
- 기준환율 : \$1=23,208 VND(동)
- 실업률 : 3.2%

□ 우리나라와의 관계

- 92.12.22 수교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 설치(92.12)
- 수출입현황(2017.12.한국무역협회)
 - 총교역액 639억불
 - 수출 : 477억불
 - 수입 : 162억불
- 투자현황(2017.12.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 579억불('88~' 17 누계)
 - 베트남의 對한국 : 0.264억불('88~' 17 누계)
- ODA : 16.44억불(OECD)
 - 무상원조 : 4.29억불('87~' 16년 누계)
 - 유상원조 : 12.15억불('87~' 16년 누계)
 - * ODA : 10.7억불(최근 5년 '11~' 16 누계)

□ 주요 고위인사 교류 현황

- 93.5 보 반 키엣 총리 방한
- 94.8 이영덕 국무총리 방문
- 95.4 도 르엉이 당서기장 방한
- 96.11 김영삼 대통령 방문
- 98.12 김대중 대통령 방문
- 01.8 쩌 득 르엉 국가주석 방한
- 02.4 이한동 국무총리 방문
- 03.9 판 반 카이 총리 방한
- 04.10 노무현 대통령 방문
- 05.4 이해찬 국무총리 방문
- 06.1 김원기 국회의장 방문
- 06.11 노무현 대통령 방문(APEC)
- 07.11 농 득 마잉 당서기장 방한
- 08.3 응웬 푸 쩡 국회의장 방한
- 08.4 임채정 국회의장 방문
- 09.5 응웬 떤 중 총리 방한
- 09.10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
- 09.11 김형오 국회의장 방문
- 10.10 이명박 대통령 방문(ASEAN)
- 10.11 응웬 떤 중 총리 방한
- 11.11 쩌응 떤 상 주석 방한
- 12.3 응웬 떤 중 총리 방한
- 13.1 강창희 국회의장 방문
- 13.7 응웬 심 흥 국회의장 방한
- 13.9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문
- 14.1 응웬 쉐언 푹 부총리 방한
- 14.10 응웬 푸 쩡 당서기장 방한
- 14.12 응웬 떤 중 총리 방한(한-ASEAN 특별정상회의)
- 15.3 정의화 국회의장 방문
- 17.4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 17.8 양승태 대법원장 방문
- 17.11 문재인 대통령 방문(APEC)
- 18.3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18.9 이낙연 총리 방문('팡'주석 국장 참석)

• 한·베트남 관계 격상

- 01.8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 09.10 이명박 대통령 방베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 교민현황(체류현황)

- 베트남내 한국인 : 약 15만명
- 국내 베트남인 : 169,738명(2017.법무부)
- 인적교류(2017.12.31. 한국관광공사)
 - 방베 한국인 : 2,415,245명(전년대비 △55.3%)
 - 방한 베트남인 : 324,740명(전년대비 △29.2%)

□ 북한과의 관계

- 50.1.31수교
 - 김명길 대사 (15.8월 신임장 제정)

II. 정치·경제 현황

1. 정치체제

-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체제로 당서기장을 필두로 하여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하 서열 순)이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성
- 헌법에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 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명시
 - 현 국가지도자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2011.1 취임
※ 국가주석직은 쯔 다이 팡 주석 서거 후 2018.10부터 겸임
 - 총 리 : 응웬 쉐언 폭(Nguyen Xuan Phuc), 2016.4 취임
 - 국회의장 : 응웬 티 김 응언(Nguyen Thi Kim Ngan), 2016.3 취임

구 분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당 서열	1위	2위	3위	4위
임기	-	5년	5년	5년
선출 방법	공산당에서 선출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 선출	국회에서 선출
역할	○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진 공산당 정치국의 리더 ○ 최근 당 일변도 체제에서 행정부,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추세	○ 1992년 개정헌법을 통해 신설 ○ 국가 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 ○ 군통수권, 외교권 ○ 헌법, 법률 공포	○ 내치를 담당하는 최고 집행기관 ○ 정부업무를 국회 및 국가주석에게 보고 ○ 총리 아래 5명의 부총리가 있음	<국회의 권한> ○ 헌법상 최고 주권 기구 ○ 헌법 제개정권 ○ 국가주석 및 총리 등의 선출 ○ 최고 검찰권

- 약 450만명 내외의 공산당원 중 정치국(18인)이 최고 정책결정권 보유
 - 공산당 조직은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등으로 구성
 - 전당대회가 명목상 공산당 최고기관이나 실질적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 지지는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정치국에서 결정한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와 전당대회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짐

【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



2. 정치정세

-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아래 정치적·사회적 안정 관리
 - 1986년부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이 상당한 성과 거두고 있다 평가하고, 기본정책으로 지속 추진
 - 특히,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 개발에 주력

-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내정치 안정, 국가 기강 확립,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
 - 특히, 2016년 신지도부 출범 이후 공산당과 정부는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 경주
 - 베트남 석유가스공사('페트로 베트남') 손실 발생 사건 관련, 부패사건으로는 사상 최초로 당 정치국원(당 라 탕 前호치민시 당 서기장) 해임 (2017.5월)
- '꽁' 국가주석 서거(18.9월)이후 '쑹' 당서기장이 국가주석직을 차기 전 당대회까지 겸직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반부패 기조는 지속될 예정
- 일각에서는 △지속적 사회경제발전, △국제사회로의 편입 가속화, △반부패,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사회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형성
 - 공산당은 그간 △당중앙위 구성원 확대, △기업인 공산당 입당 허용, △국회의원 선거 시 무소속 출마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점진적으로 대응
 - 향후 국내적 개혁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당분간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3. 경제현황

-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 성장 기조 지속
 - 2018년 베트남은 6.6%의 GDP 성장률을 달성
 - 2019년에도 거시 경제 안정 지속과 함께, FTA 확대,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투자 매력 요인 등으로 인해 높은 경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 국제 경제 통합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대외개방 기조 유지

- 2007년 WTO 가입 이후 국제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를 완성하고, 사회경제 개발을 지속 추진 중
- 한-베 FTA(2015.12 발효), 베-유라시아 FTA(2016.10 발효), 베-EU FTA(2018년 발효)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세계적 생산 및 수출 기지화 노력을 지속 추진 전망

□ 국제 경제 · 국내 개혁 등 구조적 요인 관리가 향후 관건

- 베트남의 급증하는 공공 부채, 경제구조 및 재정개혁 부진, 국제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부정적 대내외 여건이 지속될 경우 베트남 경제의 중기 성장에 한계로 작용 가능성

4.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세계경제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

- 1995.7월 ASEAN 가입, 1998.11월 APEC 가입, 2008-09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2010년 ASEAN 의장국, 2017년 APEC 의장국 수임

□ 독립, 주권존중, 평화 및 다양화·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 원칙 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

-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와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 對개도국 연대 강화
- 대미·대중 균형외교 추진 : 베트남 내 “美國과 너무 가까우면 共產黨을 잃고, 中國과 너무 가까우면 國家를 잃는다”는 격언

□ 영토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도모

□ 對미국 관계

- 베-미 관계는 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 대응 및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맞물려 정치·안보 분야 포함 제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협력 확대
 - 2016.5월 오바마 대통령 방베시 미국은 대베트남 무기금수 조치 전면 해제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응웬 쑨언 폭 총리가 2017.5월 ASEAN 국가 지도자들 중 최초로 미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간 협력 지속 중

□ 對중국 관계

- 중국은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원자재·부품 공급국으로서, 베트남으로서는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서 對중국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
 - 베-중 관계의 근간은 ‘당 대 당 관계’로서 주로 당 채널을 통해 대중국 관계를 관리
-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베트남은 아세안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사군도내 중국 미사일 배치 관련, 베트남측은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이 군사화 활동을 중단하고 베트남의 주권에 속하는 구조물에 불법적으로 배치된 모든 군사장비 철수를 요구(2018.5월)
 -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차원에서 주요 협력국들로부터 군함을 구입하거나 양도 받기 위해 노력 중

□ 베트남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 다만,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도 유지 노력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 지지
 -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
- 2019.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개최 등 북·미간 대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지속

Ⅲ.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정무관계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발표
 -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양국 정상간 양국관계 격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간 정상 및 고위인사 간 활발한 교류 지속중
 - (베트남 방문) △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17.11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방문(APEC 정상회의 참석), △18.6월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민방문, △18.9월 이낙연 총리 베트남 방문(‘짱’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참석)
 - (방한) △14.10월 ‘응웬 푸 쯙’ 당서기장 방한, △14.12월 ‘응웬 쩌 쩌’ 총리 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18.12월 ‘응웬 티 킴 응언’ 국회의장 방한
 - 19.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응웬 쑤언 푹’ 총리 방한 예정
- 양국 대사관내에 무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 퇴역함정 2척의 베트남측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는 등 국방분야 협력도 진행
 - 2017년 김천함 양도후, 2018년 여수함 추가 양도

2. 교역 및 투자

- (교역) 2018년 우리의 對베트남 교역액은 682억불(수출: 486억불 / 수입: 196억불)로 290억불 흑자 기록
 - 베트남은 우리의 4대 교역 대상국(아세안 국가중 1위) · 3대 수출 시장, 우리는 베트남의 2대 교역 대상국
 - 2018년 한국의 총 흑자는 696억불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국(2,686억불) → 미국(1,315억불) → 일본(851억불) → 베트남(682억불)
 - 우리의 對베트남 흑자는 대부분 우리 진출기업이 한국에서 소재·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발생
 - 다만, 베측은 우리측에 무역불균형 완화 필요성을 지속 요구중인 바, 우리측은 베트남의 소재·부품 분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진행 중임
- (투자) 우리는 2017년말까지 6천개가 넘는 기업이 총 578.6억불을 투자
 - 한국은 베트남 제1위 투자국으로, 일본, 싱가포르와 격차 유지 중
 - 일본(3,607건, 493억불), 싱가포르(1,973건, 425억불), 대만(2,534건, 309억불)
 - 對베트남 투자액은 2017년 19억불에서 2018년 31억불로 70%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 증가 추세 지속
- (건설) 베트남은 누적 기준 우리의 5대 건설시장이며, 특히 2018년에는 2대 건설시장으로 부상
 - 1966년 1월 대림산업 최초 진출 이후 2018년까지 390억불 수주
 - ※ 2018년 해외건설수주액 순위
 - UAE(53억불)→베트남(44억불)→러시아(31억불)→싱가포르(25억불)→사우디(24억불)
 - 베트남 수주액: 2016년(23억불, 4위)→2017년(12억불, 10위)→2018년(44억불, 2위)

※ 전체 순위(2018년까지 누적) : 사우디(1,415억불)→UAE(774억불)→쿠웨이트(486억불)→싱가포르(417억불)→베트남(390억불)

※ (주요 시공 사업) ①하노이 Landmark 72(72층, 경남기업), ②롯데센터(65층, 롯데 건설), ③스타레이크시티(60만평, 대우, 공사중), ④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6개 공구, 완공), ⑤다낭-꽝아이 고속도로(공사중), ⑥벤룩-롱탄 고속도로 (공사 중)

- (농수산물)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수산물 약 18.4억불 수입
 - 새우 3.5억불(전체 수입의 88%), 어류 1.7억불, 과실류 1억불, 쌀 7.2만톤 등 / 국내 커피의 19.3%(3.1만톤), 후추의 79%(약 4.9천톤)가 베트남산
 - 베헤은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확대를 지속 요청
 - 베헤 농산물 9종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총 8단계) 진행중이며, 국가당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하는바, 현재 '적색 용과'에 대한 절차 진행중

- 32개 우리 금융사들이 베트남에 진출
 - 32개 국내 금융회사(은행 10, 금융투자 9, 보험 8, 여전 4, 신평사 1) 진출
 - 우리 금융기업의 베트남내 지점 인가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방문시 베트남측에 적극 요청하여, KB 국민은행 하노이 지점 2018.12월 최종인가 획득 및 2019.2월 개설 / 대구은행 호치민 지점 2018.10월 인가접수증 발급 및 2019.3월중 예비인가 획득 예정

3. 개발협력

- 우리 對베트남 ODA 지원액은 2017년까지 18.3억불(무상 4.8억불 / 유상 13.5억불)로 전 세계 수원국중 1위(우리나라 ODA 총액의 약 12%)

- 특히, 우리 정부는 베트남전 한국군 참전지역인 중부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 다수 지원중
 - ※ 우리나라는 베트남내 2위 공여국(2017년 단일 연도 기준)
 - 일본(14억불), 우리나라(2.2억불), 프랑스(1.6억불), 독일(1.5억불), 호주(1억불)

4. 문화협력

- (인적 교류) 2018년 기준 한국인 베트남 방문객수는 348만여명, 베트남인 방한객수는 52만여명으로, 아세안내 우리국민의 최다 방문국
 - 베트남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15일 미만 체류시 비자를 일방 면제
 - ※ 한-베트남간 인적교류 추이
 - (2015년) 127만 → (2016년) 179만 → (2017년) 270만 → (2018년) 400만
 - 이러한 인적교류 급증세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다낭지역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베트남측과 협의중
 - 매주 200여편의 한국-다낭간 직항편이 운영중이며, 연간 100만여명의 한국 관광객이 다낭을 방문
- (고용허가제) 베트남인은 우리나라 도입 외국인 근로자 중 1위 차지 (116,909명, 2004-2018.6월간 누계 총 674,137만명의 17.3%)
 -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 중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
 - 현재 고용허가를 받아 체류중인 베트남인은 37,828명(2018.12월)
 - 주로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
- (한-베 가정) 한국내 한-베 가정은 7만가구 이상이며, 베트남 내 한-베 가정도 3천여 가구로 추정

- (한국어 현황) 대학내 한국어 학과 졸업생 취업률이 높으며 일부 한국 기업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한국어가 인기 과목으로 부상
 - 24개 대학(2·3년제 전문대 4개 포함)에서 한국어학과 또는 전공과정 운영 : 학생 수 7,600여명(2017년 기준)
 - 고용허가제를 통한 한국내 취업을 위한 한국어 학습 수요도 높은 상황

- (한류) 베트남은 현재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이며,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호감도 중 현재 한국인이 1위
 - (K-pop) 2016년 베트남 내 전국 단위 동호회 47개(회원 수 보통 1,000명 이상)
 - 규모가 가장 큰 동호회는 'EXO' 팬클럽으로 회원수 79,000명
 - (드라마)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방송은 물론 유튜브, 영화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거의 실시간 시청
 - (영화) '광해', '늑대소년', '수상한 그녀', '조선명탐정'등이 큰 인기
 - CGV와 롯데시네마가 베트남 영화관의 2/3 차지
 - (음식) 과자, 라면, 김치 등 한국 식제품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현지 마트에서도 한국 식제품 판매증가
 - (패션·뷰티)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등 성공적 진출, 현재는 고가 브랜드인 ISA KNOX, OHUI 등의 스킨케어 제품 판매 급증, 특히, '설화수'는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선호

- (스포츠)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박항서 감독 지도하에 △'18.1월 아시아 축구연맹 대회(23세이하) 사상 최초 준우승, △'18.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사상 최초 4위 기록, △'18.12월 스즈키컵 우승, △'19.1월 아시안컵 8강 진출 등 성과 도출
 - 아울러,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박충건 감독 지도하에 황 쑤언 빙(Hoang Xuan Vinh) 선수가 사격에서 베트남 최초 올림픽 금메달 획득